□문학작품속에 나타난 환경

환경문제 경종 울리는 생태문학

김원일·조세희·김지하 등이 대표적 작가
산업 근대화가 부른 자연의 위기 그려

30년전까지만도 '공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해처럼 사회에 주목받는 것도 흔치 않은 것 같다. 동아일보의 '그린스카우트', 조선일보의 '샛강을 살립시다' 등 일간지마다 다투어 환경캠페인을 벌인다. 대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적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경영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처럼 이미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비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문제와 공해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민간단체의 환경보호 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제4회 환경전문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강좌는 환경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있게 탐구하여 환경보호의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일년에 두 차례씩 마련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문학작품 속에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학은 살아가는 이야기다. 따라서 그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자각하게 된다. 작가는 '잠수함속의 토끼'의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 잠수함속에서 산소부족을 가장 먼저 느끼고 괴로워 헐떡이는 고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근래에 그런 시도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생태문학', '생태시', '환경시'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은 것이다.

첫번째 강의는 '한국문학 작품속의 환경'이란 주제로 지난 26일 오후 7시 신문로에 위치한 환경교육관에서 열렸다. 약 40명이 수강한 이 강의는 예전의 강의가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데 비해 일반인들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평론가 정현기(연세대 국문학)교수는 근대화가 가져온 환경파괴를 문학소재로 다룬 작품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두시간 남짓 강의했다. 정교수는 특히 70년대 산업근대화를 통한 환경문제가 지금에 와서 그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이문구, 윤흥길, 황석영, 조세희 등은 70년대에 이미 근대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정면에서 다룬 리얼리즘 작가군에 속한다. 그런 분위기의 초기에 쓰여진 작품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무진기행의 전반에 깔려있는 '안개'와 '수근거림'으로 규정된다.

한편 대기업의 육성과 그 확장에 따른 노동세력의 확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이고도 밀도있게 형상화한 작품들이 그 뒤를 따른다. 정면으로 노사간의 관계를 다룬 황석영의 '객지' 외에 '삼포가는 길', 비극기지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을 격렬한 분노로 묘사하고 있는 이문구의 '해벽', 농촌이 도시화 되는 과정을 시니컬하게 그린 '우리동네 이씨', 인텔리 계층이 실제적 삶에서 기여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윤흥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그외에 '비늘', '직선과 곡선', '날개 또는 수갑', 산업소설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리얼리즘 작가 외에도 상업주의 작가군으로 통칭되던 최인호, 조선작, 박범신도 70년대적 감수성을 소설적 성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작품의 메세지가 강해서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문순태의 '고향으로 가는 바람'이나 '징소리'에서도 근대화의 병폐는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한편 70년대 당시 기계적 생산성자들에 비인간적이며 몰상식한 행위는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그 실체가 잘 드러난다. 특히 김원일의 중편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70년대 당시 환경오염에 의해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복수극을 할 것인지를 예견한 점에서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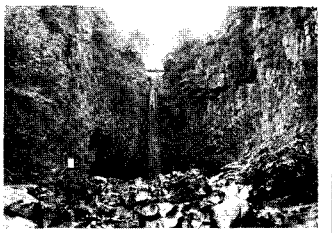
한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바짱히 보장받아야 할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열두 편의 작품들이 한 소설의 틀을 갖추고 있는 이 유명한 작품들에서는 생명과 자연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직위나 재력을 가진 재벌이나 기업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계도시'에서는 능률신봉자들이며 기계적이고도 비인간적인 세력들의 비정한 행태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환경은 인간을 향해 서서히 복수의 녹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70년대를 절정으로 하여 80년대, 90년대를 맞고 있는 우리의 근대화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현실깨우치기에 앞장서는 것이 시이다. 20~30대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고전하와 이성화가 엮은 생태환경시집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는 대표적이다. 천상병, 고은, 김지하, 정현종 등 22명의 76편의 시를 수록한 이 시집은 생요로운 근대화가 내리는 저주를 밝히고 있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시인들의 노래는 조만간 합성과 비명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현대 문명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자연환경이며 만물의 생명을 경외하고 그것을 되살려 줄 지구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시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상의 생태계 현실을 걱정하는 시편들을 쓰고 있는 정현종과 '생명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지구환경을 걱정해온 김지하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교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작가나 시인들이 더욱 치열한 가락으로 생명을 노래할 것이고 그것의 파괴자들을 매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이제는 인본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존재를 가치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우리가 훼손하는 환경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에 생태문학을 쓰는 작가들의 숨은 뜻이 있다고 분석한다. 끝으로 정교수는 생태문학은 시쪽에서 더 활발할 것이라고 본다. 또 인간의 삶을 주로 다루어 왔던 문학이 식물이나 동물을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묘시해는 작품도 나올 것이라고 피력한다. 또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이 환경문제의 가장 큰 정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작가이며 시인일 수 밖에 없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학술부〉

지상학술제



두부침식작용 지리학과 '북한지리 연구회'는 지난 4월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연천군 일대를 답사하였다. 사진은 지난 29,30일 문리대 여학생회실에 전시되었던 재인폭포의 모습.

재인폭포는 용암대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천의 두부침식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졸업논문 이렇게 준비하자

대학교육 결과물로 제구실해야

새로운 견해·해석 통한 독창성 확보
주제 접근방법·시각 분명히 제시해야

논문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내용을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논리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우선 논문의 본질적인 개념과 구성요건은 물론이고 참고문헌의 인용 및 각주 다는 요령 등 많은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 한경린 지면관계상 본 글에서 이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논문의 본질적인 개념과 구성요건에 국한하여 언급하게 됨을 미리 밝혀둔다.

논문은 글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의 정보이며 학문발표의 수단이다. 따라서 발표자의 견해나 주장이 타당하고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문은 규격화된 정보전달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용 못지않게 일정한 형식(혹은 양식)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4년의 대학교육 과정을 마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졸업논문을 작성하거나 졸업시험(필기시험)을 치룬다. 어쨌든 졸업논문제도가 "계획적인 지도하에 논문작성 과정을 통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적인 접촉을 증진하고 전공과목의 지식을 종합하여 자주적 학문연수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졸업논문은 대학교육의 결산물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졸업논문 작성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논문의 소재가 반드시 새롭지는 않다 하더라도 다루려는 연구의 방법이나 시각에 있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는 기존의 소재를 다룬다 하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새로운 견해와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모호한 개념이나 막연한 서술은 피해야 하며, 인용된 참고문헌의 저자나 표제 등은 물론이고 각주까지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셋째, 논문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 등은 피해야 한다. 넷째, 논문의 주제 접근방법이나 각도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그런 과정이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논문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읽기 좋게 작성되어야 한다.

끝으로, 논문은 유기적인 구성으로 짜임새와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크게 나누어 볼때 논문은 보통 3단계로 구성된다. 서론에서는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나 중요성 내지 그 목적을 밝혀야 하며, 논문 주제의 접근을 위한 방법론과 다루고자 하는 논문의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설득력있게 논증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논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다루어진 논문에서 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제시와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연구하게 될 경우 그것에 대한 가치까지 언급하며 결말짓는다.

이 구 용
〈영문 석사졸〉

□새로 나온 책

'이렇게 살면…'

김재욱-김중호교수 지음

자연시 통한 장수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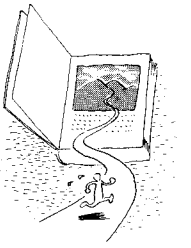
부자연스러운 인간의 생활로 야기되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의 실제, 건강 식생활, 정신적 건강요법을 소개하여 현대인의 관심사인 무병장수를 시원스럽게 해결지은책.

곡·채식 위주의 자연식과 생식 및 단식이 자연 식생활의 최상이라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연법을 지키는 길이 참다운 장수법"이라 말한다. —광문각/6천5백원

세시봉

전제연 학술부 기자

'길 찾기 위한 독서편력'



아침저녁 싸늘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그러나 올 가을의 '옷깃여밈'은 비단 날씨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존파의 표적살인, 온보현의 부녀자 연속살해, 하다못해 공무원들의 세금비리까지 세상을 경악케 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 우리사회 가치관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부각시키는 데 도가 튼 언론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방치해 두었던 사회의 도덕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인명경시의 사회풍조에 대해 절망할지도 모른다. 혹 이런 사회풍조속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관조차도 위협받지 않을까 위기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비상식이 난무하는 사회속에서 우리자신이 또다른 지존파가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대견하게 여겨야 할 처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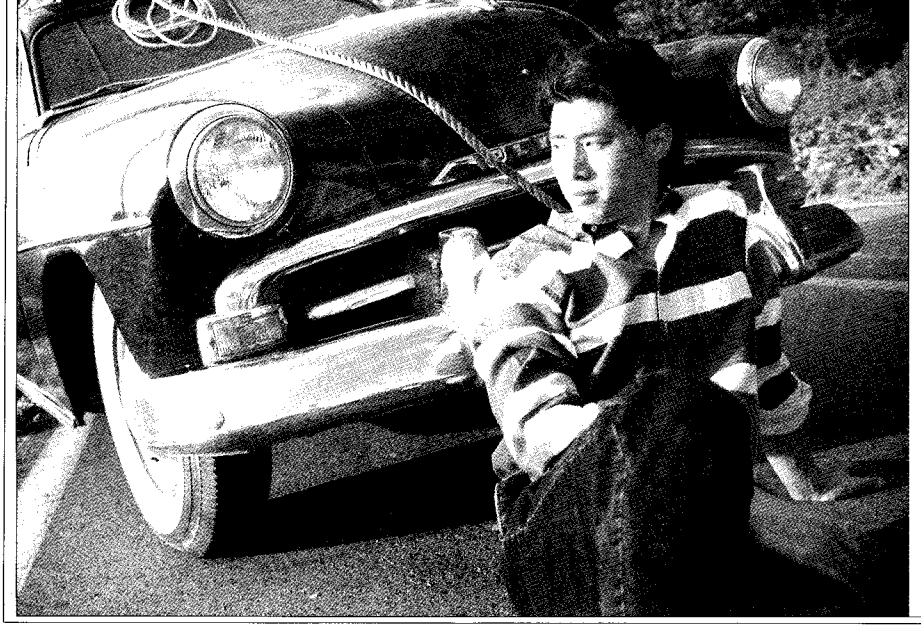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가 모든 사건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듯하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 이점은 고려의 소지가 충분하다. 우리가 잘못된 현실을 비판한다 해도 그것이 범죄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오늘의 뒤틀린 사회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현실에는 가치관이 없다. 있다면 왜곡된 가치관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지않을까 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올바른 가치관 확립 말이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서정은 텅텅 빈다고 한다. 미래는 독서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희망을 걸지 않는다. 얕은 생각과 도덕 불감증을 보이는 우리 세대는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언급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평범한 곳에 있는 진리를 외면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 한 유명한 언론인은 '자유인'이 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빚어내는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에게 필요한 상황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권의 양서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범죄와 비리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사회의 부도덕성에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게 만든 사회에 실망을 느낀다. 물론 이런 실망과 비판은 필요하다. 문제제기와 비판없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을테니 말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또 있다. 사회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지 않은 사회에 냉정하고 초연할 줄 아는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자유인이 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같이 초스피드 시대에 어느 세월에 책읽으며 사색하나고 투정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바빠야 하는지 사색해 보지도 않고 무엇을 바라며 바쁘게 사는지 의심스럽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이제는 조금 더디더라도 바른길로 가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때다.



FASHION CREATOR
동일레나운
고급양질/수선사후봉사/대표02-542-9412
대표021-383

내가 원하는 세계, 소프트 트래디셔널-
까르뜨블랑슈

CARTE BLANCHE
The Spirit of Tradition

■ 까르뜨 블랑슈 사업부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1(정한빌딩5F) TEL : 5315/363~366 ■백화점 서울 롯데 잠실점423-2186 롯데미원동포점636-2840 롯데월드점417-2368 현대본점517 0650 현대무역센타점566-8690 신세계영등포점633-1799 그랜드스 325-1806 여경930-1973 ■인천 현대무역점523-4604 ■부산 부산(백)505-4686 ■대구 대구(백)425-2436 동아(백)425-4605 동아쇼핑255 2729 대백P/L426-2995 ■대전 동양(백)254 6148 대전한신코아482-8684 ■마산 삼안(백)41-4161 ■울산 모드니(백)60-7437 ■광주 가든(백)224-6187 ■구미 동아(백)53-8297 ■대리점 충남 대전점226-2272 ■충북 청주점58-1762 ■경북 포항점41-1551 영주점32-9693 ■경남 창원점68-5604 충무점44 6666 ■전북 전주점84-6858 ■제주 제주점53-5775